

‘빛의 대화’ 광주는 거대한 미디어캔버스



7월 1~14일 2015미디어아트페스티벌

빛고을시민문화관·유니버시아드 파크서 개최

국내·외 미디어아티스트 26명 참여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기간 미디어기술의 화려한 빛이 광주를 수 놓는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진)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7월1일부터 14일까지 2015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빛의 대화(The Dialogue of Light)’를 주제로 7월 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에서 개막식과 함께 문을 연다.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시 공간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쇼와 월드컴퓨터장 인근 유니버시아드 파크에서 펼쳐지는 미디어캔버스로 크게 구성된다.

국·내외 26명의 작가가 작품을 출품해 미디어아트시티 광주를 국내외 관람객 및 선수단에게 알리게 된다.

백종옥 예술감독은 “빛으로 만들어지는 미디어아트 작품과 작품, 작품과 관객이 서로 소통하고 감성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 1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지역 음악단체인 그레이스앙상블의 공연에 이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광주 출신 퍼포먼스아티스트 김광철씨의 미디어아트와 결합한 개막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세대 : 선물’이란 제목의 작품에는 김광철 씨와 한 소년이 등장, 영상 이미지를 통해 소년에게 선물을 주는 퍼포먼스 선보인다.

미디어아트쇼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다양한 미디어아티스트 14명을 초청해 인터랙티브, 설치미술, 영상 작품들을 선보이는 실내전시다. 7월 1일부터 14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참여작가는 일본 요코하마시가 주최하는 ‘핸드메이드 애니메이션 그랑프리’에서 요코하마상을 수상한 오쿠다 마사키를 비롯해 권승찬·김다을·민성홍·박상화·심영철·에브리웨어·유비호·이완·이주용·최승준·장지연·하석준·하이브 등이다.

오쿠다 마사키의 출품작은 ‘A Gum Boy’라는 애니메이션으로 주인공인 초등학교 쿠차오가 풍선껌을 붙여서 그 안에서 보게 되는 다양한 상상의 세계를 보여준다.

관객의 움직임이나 참여를 통해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인터랙티브 아트’로는 하석준씨와 아티스트그룹 ‘하이브’, 최승준씨 등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또 유니버시아드파크 무궁화동산에서 7월 3~14일 밤 8~9시 열리는 미디어캔버스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선수들과 시민들이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대형스크린(15×10m)을 설치한다. 고성능 빔 프로젝터로 국내외 작가들의 12개 영상작품을 상영한다.

광주 출신의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와 영국의 세미컨덕터



이이남 작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오쿠다 마사키 작 ‘A Gum Boy’

(Semiconductor)를 비롯해 권수진·나명규·류호열·박상혁·백정기·신도원·양민하·양소영·이광기·진시영씨 등이 출품한다.

한편 2015미디어아트페스티벌의 부대 행사로 9월 중에 미디어아트포럼이 열린다. 서울·부산·전주·이천 등 국내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문가들을 초청, 예술



이주용 작 ‘Creative Home Living’

과 기술, 도시가 함께 발전하는 방법에 대해 국내외의 좋은 사례들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문의 062-670-7462.

○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 대표 다섯 감독 작품 25~28일 관객들 만난다

박찬욱, 봉준호, 홍상수, 김기덕, 류승완...

한국을 대표하는 다섯 감독의 작품을 만나는 ‘감독본색’전이 오는 25~28일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자신만의 독특한 영화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감독들의 대표작을 만나는 시간이자,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들의 예전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다.

봉준호 감독의 ‘마더’(2009)는 흑백 버전으로 개봉한다. 남들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아들이 여중생 살인범으로 몰려 경찰에 잡히자 아버지가 진범일 리 없다고

광주극장	감	독	본	색
				
박찬욱 ‘복수는 나의 것’	봉준호 ‘마더’	김기덕 ‘빈집’	홍상수 ‘오! 수정’	류승완 ‘죽거나 혹은...’

믿는 엄마가 직접 진범을 찾아 나서며 벌어지는 스릴러물이다. 김해자·원빈이 주연을 맡았으며 친구와 그의 여자친구로 출연한 ‘한공주’의 천우희 모습도 볼 수 있다.

김기덕 감독의 작품으로는 ‘빈집’(2004)이 선정됐다. 광고전단지를 붙여놓은 후 오랜 기간 전단지만 그대로 남아 있는 집에 들어가 머무르는 남자와 폭력적인 남편에게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여자가 만나 빈집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으로 이승연과 채희가 출연한다. 영화 ‘베데람’ 개봉을 앞두고 있는 류

승완 감독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2008)를 통해 관객들을 만난다.

날것의 연기를 그대로 보여준 류승완과 배우로 분한 류승완 감독의 초창기 모습을 볼 수 있다.

열등감에 찌든 공고생 석환, 성빈과 예술고 학생들과의 ‘폐싸움’을 시작으로 ‘악몽’, ‘현대인’, ‘죽거나혹은 나쁘거나’ 등 4편의 작품이 이어진다.

그밖에 송강호·신하균·배두나가 주연을 맡은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2001), 세상을 떠난 이은주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홍상수 감독의 ‘오! 수정’(2000)이 상영된다. 티켓 가격 6000원. 시간표 광주극장 홈페이지(cafe.naver.com/cinemagwangju) 확인.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산구립합창단 단원 모집

29일~7월 1일 접수

광주 광산구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광산구립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 지난 2000년 창단된 광산구립합창단은 2011년 남녀혼성합창단으로 재창단해 매년 정기연주회를 열고, 국제교류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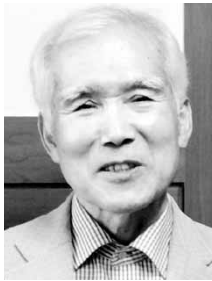
대상은 반주자와 남성단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산구에 2년 이상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실기 오디션 및 면접은 다음달 3일 광산문화회관에서 진행되며, 최종심사결과와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gwangsan.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960-82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학세계문학상 시조 대상

김옥중 시인 ‘가뭄’ 당선



문예지 월간 ‘문학세계’가 개최한 12회 문학세계문학상 시조 부문 대상에 김옥중(사진·71) 시인이 당선됐다. 당선작은 ‘가뭄’.

담당 출신 김 시인은 79년 전남매일 신춘문예와 80년 ‘시조문학’으로 등단, 작품활동을 했다. 지난 2007년 우산중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이후에는 시조 창작에만 전념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김옥중의 시조는 수상작 외에도 ‘빈 그릇’, ‘우포늪’, ‘산작약’ 등 수상작에 필적하는 가작들이 많았다. ‘가뭄’은 3연으로 연결이 한 3장 6구 12음보의 정통 시조다. 어머니의 촛불 밝히신 금강경 간경 소리가 눈에 보이는 듯 이른바 소리와 그림이 한데 어우러진 공간각 이미지즘 시조의 탁월경에 이른, 시조대상의 행운을 거머쥔 걸작”이라고 평한다.

김 시인은 “시조는 우리 고유의 정형시로 민족의 정서와 열이 깃든 장르인데 요즘에는 지나치게 파격과 변칙의 시조들이 범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통 시를 창작하고 지켜나가는 데 매진할 생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시인은 호남시조문학회 회장과 고문을 역임했으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외 창작기금 3회를 수상한 바 있다. 지금까지 ‘세숫대야 물속 풍경’, ‘돌잡나무’, ‘금강초롱꽃’ 등 작품집을 펴냈다. 시상식은 오는 7월 4일(오후 1시) 서울시 성동구청 대강당(3층)에서 열린다. 문의 016-614-5134.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장성군 북하면 소재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야 매매

편백, 삼나무 수령 40~50년생 조림
50만주(현재 묘목 : 주당 3000원)



계곡이 깊어서 물이 마르지 않고
공기와 경관이 최상지로
계곡따라 산책로 8km 조성 되어 있음!

면적 107만㎡ 매가 25억
(3.3㎡당) 평당 7,700원 정도

010-6518-7123

퇴직하신 분과
귀촌인을 위한

전원주택



매매 2억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공음면소재지)
대지 200평/건평 35평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NAVER [/광주임대](#) [고창에 집짓기](#) [농촌주택](#)

노무현 전 대통령님
봉하마을 사저와 부엉이 바위 펜화



원상화 그림 : 가로 40cm×세로 30cm
50만번의 펜선이 모여 완성된 펜화가 김영택의 작품.
판화로 찍은 10점(한정판) 중 남은 2점을 양도합니다
판화 가격은 1점당 120만원이며
원화를 구매하고 싶으시면 개별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010)3722-3076

특허방수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하자없이 20년은 너뿐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제10-1239196호
특허/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제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 시공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